

# “지속가능 농촌 미래 고민, 답 찾아야”

## 박병홍 신임 농진청장 취임사… “내년 개청 60주년 디지털 기술혁신 농업발전 기여”

박병홍 신임 농촌진흥청장이 6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홍 청장은 이날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0대 농진청장 취임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내내의 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농진청은 내년에 개청 6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이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디지털 농업 등 농업기술 혁신을 이끌면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했다”며 “농업·농촌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탄소중립 등 풀어가야 할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청장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당면한 현안 과제에



제30대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이 6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해 농식품산업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와 역할 추진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농업·농촌 현장의 애로기술과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가 선호하고 지역에 적합한 수요자 맞춤형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1인 가족 등 사회 구조 변화와

소프트웨어를 품종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청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농업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노동력은 절감하고 생산성과 품질은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분야 탄소중립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농업기술과 연계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농업부산물용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에 관한 연구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예측·경보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직원들에게는 “스스로 변화하고 자기를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국제적인 기술 동향과 흐름에 민감해야 하고, 빠른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 달라”며 “국가가 꼭 해야 하는 것과 민간 영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대학, 산업체,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노후자산관리 위한 패키지 구성

## 전북은행, JB골든에이지 패키지 상품 출시·이벤트 시니어 고객에게 최적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6일 노후 자산관리에 특화된 'JB골든에이지' 패키지상품을 출시했다.

'JB골든에이지'란 고객들이 노후에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산 설계 서비스 등의 총칭이며 이번 JB골든에이지 패키지 상품은 통장(입출금), 예금, 적금(정액적립), 신용카드로 구성된다.

특히 연금 이체 실적이 있을 경우



우대 혜택 제공 병원 입출금 환인 서비스 적용 등 시니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담았다.

또한 JB골든에이지 출시와 함께 52주년을 기념하며 이 달 31일까지 전북은행과 함께 100세를 준비한 동갑네기를 찾습니다!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8일부터 31일까지 JB골든에이지 패키지 상품 중 1개 이상

상품을 가입한 올해 52세(1970년생) 고객으로 대상 상품을 가입하면 자동 응답된다. 이 중 1명을 추천해 골드카드 또는 금카드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지원금 52만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JB골든에이지' 신유키드 출시 기념으로 비대면 발급 시 연회비 100% 캐시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 전북은행은 향후 노후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이벤트 및 대상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4477,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플리케이션)를 통해 확인 및 참여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슬기로운 농부생활, 라이브 커머스로 만나요’

## 농식품유통공사, 청년 농부 판로 지원 위해 릴레이 나서… 내일 토종 흰팔기 선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aT 스튜디오가 주요 판매 플랫폼과 함께 청년농부의 판로 지원을 위해 릴레이 라이브 커머스에 나선다.

먼저 6일 인터파크TV를 통해 제주 보타리 농업학교의 학생 청년농부가 출연하여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쪽파 무 등으로 구성된 제주겨울채소 꾸러미를 소개하며 판매에 큰 관심을 끌었다.

8일에는 네이버 쇼핑라이브의 '2시 팔도유랑'에서 농식품 전문 인플루언서 산지영과 함께 국내 유일의 토종 흰팔기 만년설을 라이브방송에서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공사는 농가와 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aT 스튜디오를 통해 제품사진, 홍보영상, 상세페이지, 3D영상 촬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촉진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제주 보타리 농업학교 김형진 대표는 “공사 제주지역본부 소개 덕에 aT 스튜디오를 통해 청년농부들의 제품 온라인판매를 위한 사진과 상세페이지를 제작했고, 이번 라이브방송까지 참여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식품거래소 운영에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부터 실제 판매까지 연계지원하고 있다”며, “aT 스튜디오가 온라인 초보 농가의 우수한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가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aT 스튜디오는 서울 양재, 광주, 대구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서비스는 홈페이지(www.aT-studio.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기안전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증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 3일, 특성화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관하여 환경경영(E), 사회공헌(S)과 윤리경영(G) 등 총 7개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3년 연속 인정기관 선정, 2년 연속 최고단계(Level 5)를 달성했다.

공사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시설개선 등 임직원 재능기부 활동부터 장애인

으로 구성된 유니버설 인문문화예술단 운영에 이르기까지 공민들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현 사장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펼친 공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민들의 강점을 살린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속 발빠른 움직임으로 수익 안정화

## 전주원파워, 올해 총 92만 REC 매매 계약 체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전주원파워가 올해 대형 발전사와 연이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F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장기 공급 계약까지 포함하면 총 92만 규모의 REC의 매매를 확정 지었다.



전주 원파워 공장 풍경

전주원파워는 최근 REC 현물가격의 높은 변동성 리스크에 대비해, 지난 7월 강릉에너지파워와 맺은 15년 장기 REC 매매 계약을 비롯해 안정적인 REC 판매량 확보에 주력했다. 전주원파워가 매년 강릉에너지파워에 공급하는 REC 물량은 전주원파워의 연간 생산 물량인 50만 REC의 60%인 30만 규모에 달한다.

이 밖에도 전주원파워는 지난달 대형 발전사와 50만 규모의 REC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보유 물량의 약 절반을 판매하고, 현물시장에서 12만 REC를 거래하며 총 92만 REC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REC 현물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비해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직접 계약이나 현물시장 거래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FS) 의무공급 비율을 현재

9%에서 내년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29%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비율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REC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전주원파워는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2010년 업계 최초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준공을 통해 직접 전주파워에 스팀과 전력 공급을 시작했으며 2013년 REC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중속법인인 전주파워를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가동을 본격 개시했다. 현재 전주원파워와 전주파워는 47 MW 규모의 생산전력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감사원 자체감사 콘텐츠 '우수상' 수상분야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김 영)은 지난 3일 감사원의 자체감사항 콘텐츠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체감사항 콘텐츠'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6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우수 감사항을 공유하고, 감사활동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감사원의 예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3개 기관 중 '우수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엄격한 보안성과 전문성으로 감사의 시각재에 놓여 있던 기금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토록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확산을 선도한 결과이다. /김윤상 기자

# 동감제농협, 지도사업 선도농협상 수상

## 경쟁력 향상·농가수취가격 제고·6차산업 추진 등 높이 평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선협중앙회가 선정·시상하는 2021년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영농지도) 부문에서 동감제농협(조합장 최진호·사장이 선정되어) 지난 3일 중앙본부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도사업선도농협상은 전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지도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 소득증대 기여 및 농촌복지 향상에 앞장선 선도농협을 발굴하고 우수모델 확산을 위해 지도사업 선도농협 16곳(영농지도 11, 여성복지 5)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동감제농협이 영농지도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동감제농협은 원예농산물 주산지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과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꾸러미 상품 개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진호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임직원이 영농지도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준 동감제농협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농축협이 지도사업선도농협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고산농협은 지난 4일 봉동생강 서두마을교육장에서 2021년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 고산농협,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수료식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지난 4일 봉동생강 서두마을교육장에서 2021년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이런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업종사 의지가 있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농업교육, 농기계실습 양성평등교육, SNS활용교육, 농업정책교육, 선진농업 견학, 6차산업 심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6개월 동안 총 15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생 중 조미진 이민여성은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한 제2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 농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교육생들의 모범이 되었다.

국영석 조합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 속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준 교육생들에게 감사하다”며 “과거와 다른 우리 농촌지역에 젊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잘 정착하여 활기찬 농촌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